혹시 내 뒤에…여성들 심야 귀갓길 무섭다

집까지 쫓아가며 잇단 범죄…원룸 창문 통해 침입 시도 20대 검거
광주 일주일새 3건…돌출형 CC-TV 설치·호신용품 구매 등 고심

최근 귀갓길 여성을 뒤따라가 집 앞에서 서성이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주거침입 범죄가 잇따르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순찰강화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성용 호신용품 구매와 CC-TV 설치 문의 등이 급증하고 있다.

남성들도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분위기다. 남성들 사이에선 심야시간대에 외진 장소 등에서 모르는 여성과 마주칠 경우 상대 여성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7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은 이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미수)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새벽 3시45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원룸 외벽 기둥을 타고 올라가 2층에 사는 B(여·29)씨의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한 혐의다. A씨는 인기척을 느낀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했다.

경찰조사결과 같은 원룸에 살고 있는 A씨는 B씨가 혼자 살고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B씨와 대화를 하고 싶어 침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서구 쌍촌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20대 여성의 집 안에 들어가려한 C(39)씨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또 25일에는 남구 주월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30대 여성의 향수 냄새가 좋다며, 이 여성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의 도어락을 만지고 냄새를 맡은 D(28)씨가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일주일 사이 광주에서만 여성 대상 주거침입 범죄가 3건이나 발생한 것이다.

최근 3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범죄도 2016년 225건(구속 9명), 2017년 269건(14명), 2018년 320건(7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성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원룸 거주 여성을 중심으로는 1층 출입문 인근 눈에 잘 띄는 곳에 돌출형 CC-TV를 설치하거나 호신용품을 구매하는 현상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또 배달 음식을 시킬 땐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 배달 어플리케이션만 이용하거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주거침입 범죄를 막기 위한 각종 대처 노하우도 공유되고 있다.

김미나(여·33·남구 백운동)씨는 "회사 회식 등으로 늦은 밤 귀가할 때 모르는 남성이 골목길 등에 있으면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이어지다 보니 호신용 최루액 스프레이나 경보기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성들 사이에서도 심야시간 한적한 장소 등에선 홀로 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 걷지 않고 잠시 기다렸다 걷는 등 여성을 배려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있다.

회사원 윤영석(46·북구 용봉동)씨는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 야간 귀가길에 앞서 가는 여성이 자꾸 힐끔힐끔 쳐다봐 범죄자 취급을 받는 듯 해 민망했던 적이 있었다는 경험담도 나온다"면서 "과거엔 길거리나 시내버스 등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따라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낭만으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남성 스스로 인식해야 할 시점인 듯 하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회삿돈 수백억 빼돌리고 주식 부당 거래
세화아이엠씨 전·현직 경영진들 기소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주식을 부당하게 거래한 세화아이엠씨 전·현직 경영진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미공개 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사모펀드 운영자인 A(55)씨 형제와 세화아이엠씨 대표이사 B(40)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말 투자조합 3개를 이용해 249억원에 세화아이엠씨를 인수한 뒤, 지난해 3월 회사 주식이 거래정지될 상황을 미리 알고 보유하고 있던 세화 주식 619만8000주를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세화아이엠씨 전체 주식의 22%에 달하는 규모로, 거래정지 전 주가는 주당 2990원 선이었다.

A씨 형제는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세화 자금 110억원으로 주당 1100원 선이었던 의료용 진단키트 업체 D사의 주식 400만주를 주당 2750원에 사들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사는 A씨 형제가 사실상 지배하던 회사로, 영업손실이 수년간 이어지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다는 게 수사 당국의 설명이다.

검찰은 다만 A씨 등이 D사 주식구입비로 쓰인 세화자금 110억원을 원상회복 조치하는 등 세화의 경영 정상화에 일부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구속 대신 불구속 수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세화아이엠씨 부회장 등 전임 경영진 2명을 구속기소 하고 전 회장과 자금팀 과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하청업체 거래대금, 직원 수를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7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81년 설립된 세화아이엠씨는 자본금 49억원 규모의 타이어 금형·제조설비 전문 기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성인게임장 현금 훔친 40대
충전 맡긴 휴대폰 때문에 덜미

광주북부경찰은 손님으로 방문했던 성인게임장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최모(46)씨에 대해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5일 새벽 0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성인게임장에 몰래 들어가 카운터에서 현금 355만원을 훔친 혐의다. 최씨는 본인의 봉고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차를 되찾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 12일 손님으로 왔을 때, 충전을 위해 휴대전화를 맡겨놓고 갔다 다시 찾으러 온 것이 CC-TV 에 찍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청소년 전자담배 판매 안돼요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에 따라 27일 오전 광주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한 편의점 출입문에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금지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관급공사 금품 로비 의혹
화순군 산림조합장 구속

화순군이 발주한 관급공사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화순군산림조합장이 구속됐다.

2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화순군산림조합장 조모(63)씨가 뇌물공여, 산림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직원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화순군의 관급공사 수주와 인사청탁을 도와주겠다며 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현직 기자와 광고업자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화순군 간부 공무원 2명도 구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 여친 지속적으로 협박
죽음으로 내 몬 20대 구속

이별을 통보한 옛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협박〈광주일보 2019년 6월 6일자 6면〉한 20대가 구속됐다. 피해 여성은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전 남자친구의 협박 등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협박 혐의로 A(2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전 여자친구 B(21)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겠다'고 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 1월 말까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두 달 넘게 협박을 받다가 지난해 1월 28일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빈 사무실 임대 도박 26명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27일 도박장을 개설한 A(50)씨와 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주부 등 26명을 각각 도박장소 개설과 도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이날 새벽 3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매월동 공구단지 내 2층 사무실을 하루 20만원을 주고 빌려 도박장을 개설하고 나머지 23명은 해당장소에서 판돈 2500만원을 걸고 도박의 일종인 '도리짓고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식당 적자에…불 지르고 보험금 타려한 자영업자 구속

경기불황 등으로 매달 1000만원 안팎의 적자를 내던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내려한 40대 자영업자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철웅)는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른 뒤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일반건조물방화·사기 미수)로 윤모(45)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새벽 3시 20분께 광주시 남구의 3층 건물에서 2층에 있는 자신의 식당(661㎡) 주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다.

윤씨는 1년여전부터 프랜차이즈 갈비구이 식당을 운영해 왔으나 매달 1000만원씩의 적자를 내자, 방화 한달 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사건 당일 식당 주변 CC-TV까지 끄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의 방화로 건물 1~3층이 모두 불에 타 2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윤씨는 보험사에 5억4000만원을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얼굴을 가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수사 초기 방화범을 잡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과수에 방화범의 모습이 담긴 CC-TV를 보내 보행(걸음걸이)감식을 의뢰하는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붕 넘어 다닌 남성 잡고보니…"몰래 여친 만나려고"

쌍나팔

○…부모와 함께 사는 여자친구를 밤에 몰래 만나기 위해 다른 집의 지붕을 넘어 다니던 20대가 범죄자로 오해받는 해프닝.

○…27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15분께 광주시 남구 백운동 주택가에서 수상한 남자가 폐가 지붕을 넘어 다닌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 출동한 경찰이 문제 남성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골목 구석구석을 수색하다가 주변을 서성이던 20대 여성 A씨로부터 담 넘은 남성의 정체를 듣고 웃음을 터트렸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모님 모르게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B(23)씨가 자신을 만나러 담을 넘어왔다고 경찰에 털어놨는데, 여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낸 B씨가 아침이 되자 다시 담을 넘어 옆집 폐가 지붕 위를 가로질러 여친의 집을 빠져나간 것으로 판명.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